

장수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최훈식 군수, 기재부 찾아 지역 핵심 현안 사업 국비 반영 진의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연 활동에 나섰다.

이날 최 군수는 기재부를 방문해 사회예산심의관실, 복지에산과, 안전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타당성심사와 등 주요 간부를 차례로 만나, 민선8기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162억 원)△공설장사시설 조성(190억 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228억 원),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3건, 100억 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등 총 8건의 핵심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 탄소중립 실현, 국토균형발전 기조와도 부합하는 만큼 정부 재정지원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장래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연 활동에 나섰다.

중립 실현 및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하수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국도 26호선 장수 천천~진안 구간간의 2차로 개량 필요성을 부각하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해당 구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최훈식 군수는 “기재부 심의는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의 핵심 분기점이다”며 “오는 8월까지 이어지는 심의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장수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버벌구 확산 막는다

버 재배지 1104ha 대상 병해충 3회 공동방제 실시

진안군은 최근 버벌구 발생 우려에 대응해 20일부터 26일까지 버 병해충 1차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는 백운면과 성수면을 시작으로 공동방제 지원 사업 접수에 따른 관내 버 재배지 1,104헥타르(ha)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버벌구는 발생 초기에 방제를 실시해야 고온기 세대 번식을 차단하고 조기 예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찰을 강화했으며, 농업인 단체,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공동방제 시기를 결정하고 버벌구에 특화된 전용 약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올해 버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차례의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2회 방제에서 1회 늘어난 것으로, 병해충 밀도를 낮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2차 방제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3차 방제는 8월 25일경 실시될 예정이며, 방제 일정은 기상 상황과 병해충 확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방제 비용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이 50%, 지역농협이 20%를 각각 지원한다. 남은 30%만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방제 참여율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이배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 개최

전국 탁구 동호인들이 하나 되는 제 11회 무주반딧불이배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가 지난 18일 막을 올린 가운데 22일까지 무주군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무주군탁구협회(회장 이주연)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2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펼치고 있다. 대회 첫날인 18일에는 무주·진안·장수 지역의 시니어부 경기가 진행됐으며, 2~3일 차에는 일반부 선수들이 개인 및 단체전 경기를 치르며 실력을 뽐냈다.

지난 19일 열린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 등 1천여 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탁구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장학금 2백만 원을 무주교육발전재장학발전재단에 기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다양한 대회와 훈련을 치러내면서 탁구 친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라며 “무주반딧불이배는 무주의 자랑이기도 한 만큼 탁구인이란 참가하고 싶은 대회, 꼭 참가해 봐야 하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지난 18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농협, 사단법인 소산(무주군립요양병원)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맞손’

무주군, 무주농협·소산(무주군립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지난 18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농협, 사단법인 소산(무주군립요양병원)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무주군은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기관인 무주농협은 지역 농가 조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사단법인 소산은 무주군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기관으로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필요 농산물에 대한 수요 정보를 무주농협과 공유하는 등 원활한 생산·공급 체계 구축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생산

자와 소비자의 상생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무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래진료실과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일반병동(1~2층, 84병상), 치매전문병동(3층 42병상)에 총 36개 병실, 126병상을 갖춘 무주군립요양병원의 수용 인원은 직원 등을 포함해 하루 최대 2백여 명으로 무주군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 농산물 소비 증대는 물론, 단체 급식을 하는 지역 내 기업 및 기관, 학교 등의 동참을 부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후견인제 및 2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민원후견인제·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시상

장수군,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마련

장수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후견인제 및 2분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군민 만족도 향상과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상 분야는 △민원후견인제 우수공무원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2개 분야로, 민원후견인제 우수공무원에는 민원과 장문정 팀장이, 민원처리 단축 부문 최우수공무원에는 환경과 최승원 주무관, 우수공무원에는 물관리와 서한결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중견 공무원들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 등의 안내와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민원후견활동 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대해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업무 난이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자는 마일리지 누적 순위에 따라 선정됐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장수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성수면, 독거어르신 보양음식 나눔

진안군 성수면은 지난 18일 오전 성수면 스포츠공감센터에서 ‘독거어르신 보양음식 나눔 및 위안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지호, 정순옥)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관내 독거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여름철 건강을 위한 삼계탕 식사와 위로 공연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성수면 사회단체 일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역 업체 및 기관들의 정성 어린 후원이 더

해져 더욱 뜻깊은 나눔의 장이 됐다.

성수 중령 풍물패의 신명 나는 풍물 공연으로 시작해 송사탕 기획사의 공연 재능기부로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진안 동부새마을금고의 커피 봉사, 진안일자리센터의 팝콘 나눔 봉사, 진안군 보건소의 건강체크 봉사가 이어져 따뜻한 정도 나눴다.

특히 성수면 산수동마을 출신인 동안버니투상사의 김중상 대표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자순 300개를 후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25~26일 제9회 번암물빛축제 개최

장수군 번암물빛축제위원회(위원장 소순배)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번암면 시동강천변공원 일원에서 ‘물과 빛’을 주제로 제9회 번암물빛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기존 개최되었던 물빛공원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해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동강 천변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25일에는 주민 참여형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영화 상영회’ 등이 열리고, 26일에는 ‘체험·게임 프로그램’, ‘초청가수 공연’, ‘노래자랑’에 이어 여름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번암면 이장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축제 준비에 동참하고 있으며, 방문객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소방서, 여름철 전기화재 주의 당부

무주소방서(서장 김정수)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근 3년 여름철(6~8월)에만 총 1,35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누전, 과열·과부하,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353건으로 26%를 차지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554건, 4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무주소방서에서는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알람에 나섰다. 안전 수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와 실내는 단일 전선 사용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체와의 거리를 10cm 이상 이격 △에어컨 과열 금지 위해 장시간 사용 금지 등이 있으며, 선풍기 사용시에는 △본체와 콘센트 부분의 먼지가 생기지 않게 관리 △모터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 △KC 인증마크 부착 제품 구입 등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주소방서, 집중호우 대비 비상대응 강화

장주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집중호우와 관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비상대응에 나섰다

장수군은 산간·농촌 지역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기존 침수피해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이 혼재돼 있어 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하다. 이에 장주소방서는 기상청의 실시간 예보를 바탕으로 기상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4시간 상황유지 및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장주소방서는 주민들에게 집중호우시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하천변이나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통행 금지 △기상특보 및 재난 문자를 수시로 확인 △비 피해가 예상되는 가정은 배수구, 하수구 사전 점검 등이다.

장주소방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역도경기대회서 다수 부문 입상

김요한 용상 1위·최지호 인상 2위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이 2025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15일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스포츠크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 진안군청 소속 선수들이 다수 부문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남자 67kg급에 출전한 김요한 선수는 용상 부문에서 160kg을 들어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인상과 용상 합계 276kg으로 종합 2위에 올랐다.

같은 대회 남자 81kg급에 출전한 최지호 선수는 인상 부문에서 144kg을 들어 올리며 2위에 입상했다.

이에 대해 진춘성 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값진 메달을 획득해 진안군의 명예를 드높인 역도선수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지난 15일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스포츠크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있도록 군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훈련과 역량 강화로 우수 선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